


효천 테마 독서

"도서관"

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



<도서관에 핀 이야기 꽃> 아니가 알다무이 데니즈 / 봄의정원

1921년 고향을 떠난 푸라는 뉴욕으로 갔어요. 에스파냐어, 영어, 프랑스어를 하는 푸라에게 여러 나라말을 하는 보조 사서를 찾는 도서관 소식은 축복과도 같았어요. 뉴욕 공립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게 된 푸라는 자신만의 장기를 활용 해 도서관에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죠. 푸라의 멋진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 며, 진정한 사서 푸라 벨프레를 만나봐요.

<완벽한 책을 찾아서> 유디드 코펜스 / 우리교육

샘은 베니를 위한 책을 찾아 도서관으로 떠나요. 베니는 샘과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어요. 하지만 도서관에는 강아지는 들어올 수 없대요! 샘은 혼자서 베니를 위한 책을 찾기 시작합니다. 책을 찾아 창밖에 있는 베니에게 보여주지만 베니는 시큰둥해요. 베니를 만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책을 찾는 샘은 과연 완벽한 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?



효천 테마 독서

"도서관"

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🔍



<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> 조셉 코엘료 / 노란돼지

오늘은 루나가 기다리던 도서관 가는 날이에요. 도서관 가방과 카드, 돌려줄 책을 챙기고 마침내 도착한 도서관! 도서관에는 늘 책을 읽으며 루나를 기다리는 아빠가 있어요. 아빠와 루나는 도서관 탐험을 나서는데요. 루나가 가장 좋아하는 큰 책이 꽂혀 있는 서가부터 가요. 그다음은 아빠는 싫어하지만 루나가 좋아하는 곤충 책을 만나죠. 루나의 가방은 점점 원하는 책으로 가득 찹니다. 집으로 돌아온 루나는 또다시 도서관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.

<도서관의 비밀> 통지아 / 그린북

도서관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는 날,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. 도서관은 문을 닫고, 나밖에 없는데 말이죠. 이곳저곳 살펴봤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. 이상한 그림자는 계속 나타났고, 도서관은 책이 펼쳐지고 흩어져 있어 엉망이 되어 가요. 도서관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범인은 누구였을까요?



효천 테마 독서

"도서관"



전주효천초등학교 도서관 🔍



<도서관 생쥐> 다니엘 커크 / 푸른날개

어린이 참고서 칸 뒤쪽 구멍에 사는 생쥐 샘은 도서관이 북적이는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왔어요. 밤마다 책을 읽고 또 읽고, 자신의 지식을 쌓아갔어요. 어느 날 밤 샘은 글을 직접 쓰기로 마음먹었어요. 종이와 연필을 구해 날마다 열심히 글을 쓰고 마침내 완성해 도서관 책꽂이에 꽂았죠. 어엿한 작가가 된 샘의 책을 아이들이 읽고, 공감할 수 있을까요?

"책은 각각의 독서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."

- 보르헤스 -